

아동 문학

2006년
겨울호

(루게 제 117호)



중국조선족유일순수아동문학지

아동문학

2006년 겨울호(루계 제117호)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

ER TONG WEN XUE

2006년 7월호 117호

E-mail: admh123@hanmail.net



차례

소설

- 021/ 성숙 -박초란
- 058/ 돌주머니나무 -김진우
- 118/ 마음을 붙이는 점착제 -김병규
- 131/ 진주목걸이에 깃든 비밀 -김미란
- 143/ 푸른 손수건 -손연자
- 191/ 소망 -해 성
- 215/ 어머니를 사세요 -카르마



김미란

동화

- 001/ 사이버공간에서 회전하는 지구들... -김준택
- 039/ 작은 솔씨의 고백 -소민호
- 108/ 병아리들과 엄마닭 -신금화
- 111/ 벼룩과 교수님 -안데르센
- 206/ 욕심사나운 쥐 -M·레오체



김준택

편집위원회

주 임: 류연산

부 주 임: 김현순(상무)

편집위원: 김득만

김만식

리태학

한석윤

최문섭

허호범

도서질감독전화

0433-2902102

0433-2902135

편집부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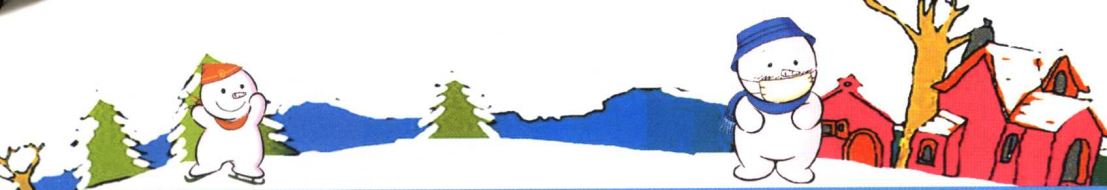
延吉市友谊路363号

延边人民出版社

《儿童文学》编辑部

우편번호: 133000





동시

069/ 하늘(외 5수)

-한석운

074/ 비오는 날(외 5수)

-림금철

079/ 빈집(외 1수)

-윤하섭

081/ 웅달샘과 진달래(외 1수)

-정경남

083/ 단풍아이들(외 7수)

-김동진

089/ 시내물(외 2수)

-최화길

091/ 할머니 반지(외 1수)

-리향미



림금철

동시조

067/ 박꽃(외 2수)

-리상각

수필

034/ 책부자

-박일호

050/ 바다의 딸로 태어나고싶다

-전춘식

104/ 거울

-리금덕



전춘식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7印张 字数：250千字

标准书号：ISBN 7-80698-645-6 / I·93 (民文)

版次：2006年10月 第1版 2006年10月 第1次印刷

印数：1-300册

定价：1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필: 듀언산
주 필: 김현순(상무)
책임편집: 장해연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려란



140/ 밤하늘엔 별이 반짝인다 -리현자

199/ 내가 받은 첫 계발 -김대식

203/ 아름다운 수수께끼 -리본녀

인터뷰

094/ 조롱남시인탐방기 -리 연

우화

056/ 수탉과 장평 -현명규

옛날옛적에

179/ 손이 없는 여자애 -김천사 번역

기획조명

155/ 동시·김학송근작대표동시묶음 -김학송

164/ 평론·동심에 꽃피난 참신한 동시 -김만석



김학송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儿童文学. 2006年冬季版 / 柳燃山主编. —1版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3
ISBN 7-80698-645-6

I. 儿... II. 柳... III.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世界-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18

사이버공간에서 회전하는 지구들...

김춘택

1. 작아지는 지구

《우리의 생존공간—지구가 작아지고있다. 날마다...》
아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해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자꾸 크는데 지구가 날마다 작아지면 숨막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무작정 커진 내가 급속히 작아진 지구를 깨 버리면 어떡해? 그럼 난 어디서 살지?》

해리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앞에서 생각하는 동물은 고민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는 해리는 꼭 마치 수면에 머리만 내밀고 눈알만 편들거리는 청 개구리 같았습니다.

2.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요즘 지구에는 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지구는 작아질수밖에 없어.》

며칠동안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을 거듭한 해리는 드디어 지구가 작아지는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해리는 지구에서 넘치는 사람들의 부류를 골라 메모장에 적어보았습니다.

1. 범죄자들이 넘침. 2. 병자들이 넘침. 3.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넘침. 4. 장애인들이 넘침. 5.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넘침

해리가 메모장에 적은 이 다섯 부류 사람들의 안식처는 시급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는 지구에 넘치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넘치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보낼 그 어떤 공간도 이 세상-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달에 보낼까? 해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긍정했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공상-유토피아의 꿈에 불과했습니다.

달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서 사람이 살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어찌 그런 사지로 보낼수 있을까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지구에서 떨어낼수만 있다면 지구는 작아지지 않을거야. 그리고 무력무력 커져가는 나때문에 지구가 깨질 걱정은 없겠지. 혹 마법의 세상이라도 존재하지 않을까? 혹 그곳으로 통하는 마법의 열쇠가 나한테 있다면 난 이들을 데리고 해리포터형을 만나러 갈건데...》

해리의 걱정과 갈망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이

제 해리한테 별다른 방법이 없는 일이여서 해리포터가 사는 마법의 세상으로 통하는 출구를 찾고있었습니다.

《내가 해리포터의 친동생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한대. 이 세상에 것처럼 많고 많은 이름을 두고 아빠가 날 해리라고 이름지은것부터 수상해. 아빠가 이름을 지을 때 해리포터형이 마법을 부린것이 아닐가? 그것보단 내가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해리포터형이 울 아빠의 아기와 날 바꾼것이 분명해. 그러니 난 분명 해리포터형의 친동생일거야. 그러니 난 마법의 세상으로 통하는 출구의 열쇠를 꼭 찾을수 있어.》

해리는 여간 자신만만한것이 아니였습니다. 자신이 해리포터의 친동생이니 마법의 세상으로 통하는 출구를 못찾을 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해리포터형이 자신의 이런 고충을 헤아리고 먼저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해리포터형을 기다릴수는 없었습니다. 시시각각 지구는 작아지고 자신도 무력무력 자라고있으니 조금도 느장을 부릴수 없었습니다.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출구를 나절로 찾아야 해. 오늘은 밤도 깊었으니 폭 자고 래일아침 일찍 떠나야 해.》

해리는 급급히 이불속으로 기여들었습니다. 혹 꿈나라에서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출구를 찾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3. 사이버공간으로 통하는 출구

해리는 자신이 살고있는 도시를 몇바퀴 돌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아직 마법의 세상으로 통하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

왔습니다.

《오늘은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출구를 꼭 찾을수 있을거야?...》

해리는 매일 이런 기대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해리한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해리는 허탕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서너달에 노을이 물들고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리의 사지가 나른해지지 않았습니다. 더없는 용기가 래일을 기다리고있었기때문입니다.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출구를 찾는게 아주 쉬운 일일수 없지. 방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다 마법의 세계로 갈거야. 그러면 거기의 공간도 작아질것이 뻔하고 아예 내가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래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더 열심히 찾아야 해.》

해리는 래일의 희망을 가득 안고 즐거운 귀가를 하고있었습니다.

《해리야, 이 세상에 넘치는것들은 꼭 마법의 세계만 가야 하는건 아니야. 거기가 확실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이버공간도 우주같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어쩔 마법의 세계보다 더 광활할지도 몰라.》

해리가 집에 도착하여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를 열기 바쁘게 누군가 이런 대화를 보내왔습니다.

(이 대화를 보내온 사람은 누구일가?)

하도 이상한 대화를 접한 해리는 메신저주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주소창에는 《사이버공간 도우미@hotmail.com》이라는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해리는 호기심이 부쩍 동해 사이버공간 도우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 넌 누구니?》

《난 사이버공간의 도우미야.》

《사이버공간에도 사람이 사니? 너 혹 사람 아니지?》

《호호, 사람이 아니긴. 난 아주 예쁜 여자애야. 오늘부터 사이버공간의 도우미로 일을 해. 사이버공간은 우주같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여긴 천사같은 사람들만 살지. 너 혹 여기 와서 나와 친구로 사귀며 살 생각이 없니?》

《나도 거기서 가서 살수 있니?》

《왜 못살아? 이처럼 깨끗한 세상에서...》

《도우미야, 고마와... 나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거기서 가 살아도 되니?》

《친구들이 많아?》

《친구들이 많은건 아니고... 우리 지구에는 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 내가 지구에 넘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마법의 세계에 이주해가 살려고 노력했어. 헌데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출구를 찾지 못해서 걱정이거든. 비록 마법의 세계로 가는 출구를 못찾았지만 다행히 마법의 세계보다 더 좋은 사이버공간이 있다니 거기서 이들을 데리고 가려 하는데...》

《대환영이야. 넌 마음이 아주 밝은 애구나. 너같은 애라면 내가 마다할리 없지. 헌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대략 다섯 부류의 사람들인데... 범죄자들, 병자들, 사랑을 잃은 사람들, 장애인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야. 난 이런 사람들을 다른 세상에 데리고 가서 착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로 만들 생각이야?》

《와! 아주 기발하고 기특한 생각이구나. 어서 우리 사이

버공간으로 와. 나도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헌데 거기로는 어떻게 가지? 나에게 출구를 알려줘. 어딘지?》

《출구는 너의 집 전화선에 있어. 전화선을 전화기에서 뽑은 다음 전화선코드를 잡고 <사이버공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하고 세번 주문을 외우면 곧 사이버공간으로 들어갈수 있는거야. 그럼 안녕! 우리 사이버공간에서 만나! ...》

해리는 사이버공간 도우미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딘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해리는 전화기에 꽂혀있는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전화선의 코드를 잡고 사이버공간 도우미의 말대로 《사이버공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하고 세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전화선코드에서 광풍이 부는듯하더니 아주 빠른 소용돌이에 해리자신이 휘말렸습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해리는 그 소용돌이를 타고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어둡고 별빛이 반짝이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해리는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난 악마의 홀림에 들었나봐?!》

4. 해리, 세쁜 사이버공간 도우미를 만나다

해리가 공포를 느낀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해리가 공포를 느끼는 순간 밝은 불덩이 하나가 해리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의 가까이에 다가온 불덩이는 해리에게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안녕! 해리야.》

《웬 불덩이가 인사를?...》

해리가 신비함에 눈을 깜빡이고있을 때 축구공같이 날아온 불덩이가 직선으로 일어섰는데 실은 아주 예쁜 녀자에였습니다.

《네가 사이버공간 도우미니?》

해리는 반가운듯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이버공간 도우미야. 환영해! 해리야, 네가 사이버공간의 새 식구로 된걸.》

사이버공간 도우미란 애도 무척 반가와했습니다.

신비의 세상-사이버공간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해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리는 사이버공간 도우미한테 물었습니다.

《사이버공간은 본래 이렇게 어둡니?》



《그래. 하지만 걱정할건 없어. 네 눈에 보이는 어둠들은 빈 공간일뿐이야. 어둠이 많을수록 사이버공간이 크다는것을 설명해. 그리고 사이버공간은 절대 작아지지 않아. 그것은 사이버공간은 사용하면 할수록 커지기때문이야. 저기 가끔씩 스치는 불빛들만이 현재 다른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야. 너나 나나 모두 사이버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한점의 불꽃일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있는 곳은 작은 동네 같은 지구들이야. 거기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어. 사이버공간에는 이런 지구들이 별들처럼 많은데 이런 지구들은 이곳 사이버공간에서 사는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나는 사이버공간의 도우미이기에 새 식구를 안내하는 일밖에 하지 않아.》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해리에게 사이버공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부터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해리는 너무 흥분해서 환성을 질렀습니다.

《와! 너무 좋은 세상이구나?》

《벌써부터 감탄할 일은 아니야. 내가 말하고있는것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소개에 불과할뿐이야. 나도 금방 이곳으로 왔기에 아는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선 내가 살고있는 도우미지구촌으로 가서 구경을 하고 호적을 붙이자.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내가 할 일을 선택해야 돼. 그럼 어서 가자.》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해리를 데리고 도우미지구촌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벌써 축구공만한 불덩이로 되어 저만치 날아가는데 해리는 한발작도 내디딜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걸으려고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 도우미야! 난 왜 움직일수 없어.》

해리는 선자리에서 허우적이며 사이버공간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저만치 날아가던 사이버공간 도우미도 미처 무언을 생각하지 못한듯 다급히 되돌아와 섰습니다.

《해리야, 내가 깜빡했어. 사이버공간에서는 걸을수 없어. 이 광활한 공간을 걸어다닐수는 없지. 여기서는 불덩이로 되어 날아다녀야 해.》

그제야 해리는 사이버공간 도우미가 실은 활활 타는 불덩이속에 갇힌 모습이란걸 보아낼수 있었습니다. 하여 해리는 더욱 안달아났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하니? 난 너처럼 불덩이도 아닌데...》

《네가 왜 불덩이가 아니라고 그래?》

사이버공간 도우미가 골려주는듯 말했습니다.

《난 아니잖아? 방금까지 거리를 헤매고 걸어다니던 내가 어찌 불덩이란 말이니?》

해리는 도무지 종잡을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품속에서 거울 하나를 꺼내 해리에게 비추었습니다. 거울속에 나타난 해리도 사이버공간 도우미처럼 활활 타는 불길속에 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어... 나도 불덩이가 되였네? 아무런 신고식도 없이 이런 불가사의한 범술을 부리다니? 아, 아... 혹 내가 꿈이라도 꾸고있는것이 아닐가?》

해리는 너무 기쁘고도 당황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해리에게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그 신비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전화선코드를 통해 사이버공간으로 오는 순간부터 활활 타는듯하는 불길이 몸을 감싸게 되는거야. 그건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속에서 흐르는 미세한 전류야. 이처럼 미세한 전류가 없다면 거대한 사이버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불과해. 가느다란 전화선속에 이처럼 방대한 사이버공간 즉 생존공간이 있게 된것은 다 이 미소한 전류가 조화를 부리기때문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컴퓨터로 볼수 있는 사이버공간이 바로 그 가느다란 전화선속의 세상인거구나.》

해리의 신비는 확 풀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컴퓨터로 보던 사이버공간이 가느다란 전화선에서 흘러온다는것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고 그런 호기심때문에 아주 여러번이나 칼로 전화선을 베어보았습니다. 결국 전화선속에는 실오리같은 구리선이 몇오리 있었을뿐이고 그것때문에 아빠한테 야단을 맞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어서 도우미지구촌으로 가자. 너도 나처럼 불명의로 움직이려면 <나는 축구공, 출발!>이라고 주문만 외우면 돼.》

해리는 사이버공간 도우미가 알려준대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해리도 사이버공간 도우미처럼 축구공만한 불명의로 되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이버공간 도우미를 따라 이른 도우미지구촌은 자그마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사이버공간 도우미 몇사람이 사는 도우미촌은 아동공원같았습니다. 해리가 도우미지구촌에서 해야 할 일은 사이버공간호적등록과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선택하는것뿐이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할 일은 무척 많았지만 해리는 한가지 일만 하고싶었습니다. 그 일이란 아까 사이버공간 도우미가 말하던 지구를 디자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급히 지구를 다섯개 만들어야 한다고 해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해리가 지구에서 넘치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수 있었기때문입니다.

《나는 지구디자이너가 될래. 그래야 지구에서 넘치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사이버공간에 데리고 올수 있을거야.》

해리는 사이버공간 도우미에게 자기의 속심을 말했습니다.

《그럼 지구디자이너학원에 신청을 해라.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해야 지구디자이너로 될수 있거든.》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해리에게 지구디자이너학원의 입학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해리는 신이 나서 입학신청서에 해리라고 크게 적어넣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휴식하고 래일 지구디자이너학원이 있는 지구디자인촌으로 가자.》

《고마와! 오늘부터 우린 다정한 친구로 사귀자.》

해리는 너무나 좋아서 사이버공간 도우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 해리, 지구디자이너학원을 다니다

하루동안 도우미지구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해리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사이버공간 도우미를 닥달했습니다.

《빨리 지구디자이너학원이 있는 지구디자인촌으로 데려다줘.》

《아직 거긴 꿈나라야. 그리고 아침이나 먹고 가야지.》

해리의 닥달에 잠을 채 깨지 못한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슬그머니 짜증을 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에너지만 먹고 산다고 했잖니? 어서 가...》

해리는 사이버공간 도우미가 핑계를 대고있으니 더욱 참

을수 없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밥따위는 먹는 법 없고 에너지만 먹고 산다고 어제 분명 사이버공간도우미가 가르쳐준것입니다.

《그럼 에너지라도 먹어야 하는거 아니니? 이 바보야!》

해리의 탁달을 도무지 이겨낼수 없는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두덜거렸습니다.

사이버공간 도우미는 해리를 데리고 도우미촌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밥 먹으러 간것이 아니고 아침에너지 먹으러 간것이라 해야겠죠. 에너지를 먹는 일은 극히 간단했습니다. 식당의 벽마다에 《에너지 보충함》이란 궤들이 가득했는데 저마다 그런 빈 궤를 찾아 한 10분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번만 그런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신선이 된것입니다. 먹지도 쏘지도 않는 그런 신성함으로 사니까요.

사이버공간 도우미를 따라 지구디자인촌에 이른 해리는 황홀함에 빠졌습니다. 지구디자인촌은 실제 미싸일발사기지 와 같은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발사하는것은 공포의 미싸일이 아니라 아름답게 설계된 지구공들이었습니다. 겨우 축구공만한 지구공들이 발사탑에 주렁주렁 달려있었는데 흡사 감나무에 감이 달린듯했습니다. 해리는 신비해서 도우미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도 나무에 달리니?》

《나무가 아니고 지구발사탑이야. 여기서는 매일 지구 수백개씩 발사해. 그만큼 지구가 많이 필요하니까.》

사이버공간도우미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렇게 많고 작은 지구들에도 모두 사람이 사니?》

해리는 더욱 신비스럽기만 하였습니다.